

# 靑 비서진 전원 사의... 분위기 쇠신할까

### 노영민 유임·순차 교체 무계 비서실장에 양정철·유은혜 정무수석 박수현 등 하마평

최근 사표를 제출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5명의 수석 비서관 가운데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우선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3명의 수석 비서관 교체 이후,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수석 비서관의 사표를 우선 처리하는 것은 비서실장 후임 인선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9일 여론 핵심 관계자는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정무, 민정, 국민소통수석은 그동안 계속해서 교체가 검토돼 왔다는 점에서 조만간 후임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노 실장 교체론도 그동안 거론된 바 있으나 적절한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무·민정·국민소통·인사·시민사회 등 비서실장 산하 수석 5명은 지난 7일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국가안보실이나 정책실 산하 수석들은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노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고위 참모들의 사의 표명은 사실상 문 대통령이 교체 결심을 굳힌 것이라 보고 후임 인선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단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인 비서실장에 과연 어떤 인사가 기용될 것인지 주목된다.

다. 당장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복심형 인사와 통합·관리형 인사들이 거론된다. 복심형 인사로는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여기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4선 의원 출신의 최재성 전 의원도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반면 통합·관리형 인사로는 전남 출신의 우은근 전 러시아 대사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차기비서실장 임명은 그 함의가 크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고심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의외의 인사가 깜짝 기용될 가능성도 크다.

강기정 정무수석의 후임으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꾸준히 하마평에 올라왔다. 박 전 대변인은 친화력이 크다는 점에서 정무수석이 아닌 국민소통수석에 기용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김조원 민정수석의 후임에는 그동안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거론되어 왔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후임에는 박수현 전 대변인, 정구철 전 홍보기획비서관, 이근형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등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제3의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함께 사의를 표명한 김외숙 인사수석과 김겨성 시민사회수석은 유임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영민 실장과 수석 5명의 일괄 사의는 여론에 대한 민심 이반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지를 급락 현상이 집권 후반 대통령의 권력누수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려면 대통령의 측근 수축부터 자르는 대대적 인적쇄신이 불가피하다는 데 정권 핵심부의 의견이 모아졌다는 얘기도. 실제로 이번 일괄 사표는 노 실장이 이날 오전 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은 이날 문 대통령과 노 비서실장(왼쪽)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석들에게 전격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실장은 "다들 청와대에 근무를 하지 오래됐고, 비서실도 분위기 쇠신이 필요하지 않나"고 했고 여기에 5명의 수석이 동의를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 역시 오는 29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청와대 참모들의 퇴진은 당청이 함께 새 체제를 꾸리며 분위기를 쇠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일괄사퇴 카드가 국면을 바꿀 하나의 '타닝포인트'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여야, 검찰 인사 놓고 설전

### 김용 "애완용 검사 특세"... 김남국 "윤 측근만 승진하나"

미래통합당 김용 의원이 지난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애완용 검사들이 특세했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계속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출신인 김 의원을 향해 '윤석열 검찰총장 대변인이냐'고 몰아세우자, 통합당 의원들은 이에 질세라 '애완용 의원들'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김용 의원 발언을 보니 검찰 내에 정말 특정 사단이 있는 것 같다"며 "이번 검사장 승진자들은 검찰 내에서 모두 신망이 두터운 분들이다. 어떻게 이분들을 싸잡아서 막말을 쏟아낼 수 있는냐"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어 "윤 총장의 측근들이 승진하지 못하면, 윤 총장 뜻이 반영되지 않은 인사면 잘못된 것이고 검찰이 '애완용 검사'가 특세하는 세상'이 되는 것인가"라며 "그럼 윤 총장 측근만 승진하고 검사장 하라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전남 박병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통합당 검사 출신 의원이 이걸 비유라고라며 '제발 우리 검사들이 동물에 비유되는 세상은 끝내자'라고 썼다."

통합당 권영세 의원은 이날 보도된 김남국 의원 발언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김용 의원이 최근 일부 검사들을 '애완용 검사'라고 비판을 하자, 김 의원의 표현을 빌릴 때 '애완용 의원'이 반박을 했네요"라고 지적했다.

조수진 의원은 여러 인사들이 '김용 때리기'에 나섰다며 "대체 무슨 염치로 누구를 향해 눈을 부라리고 돌을 던지려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김남국 의원에 대해 "성희롱 갖개스트에 출연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가짜 정의' '가짜 공정'을 외치는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비판했고, 박병계 의원에 대해서는 "이상한 억양"이 빠져 "특정 지역"을 통째로 싸잡아 비난해놓고도 공개 사과 한마디 없는 '낯 두꺼운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 국회, 협치 되살리나

### 여야 원내대표 회동... 김태년, 입법 속도조절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입대차 3법 등 부동산 입법의 완급을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지난 6일 만찬 회동을 계기로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주 원내대표에게 "절차적으로 미안하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일하는 국회법 처리, 행정수도 이전 등 주요 현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화와 협상에 무게중심을 둘 것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부동산 입법은 빨리 처리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었고, 계속 밀려붙기만을 할 수는 없다"며 "8월 결산 국회와 9월 정기국회는 국정감사와 법률심사, 예산 등 일상적인 국회 패러다임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이러한 속도 조절론의 배경에는 핵심 지지층인 수도권과 30대, 여성의 지지가 이 계속 빠지며 통합당과의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는 데 따른 위기감이 한 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가 주 원내대표와 만난 지난 6일 발표된 여론

조사 결과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격차는 처음으로 소수정파로 좁혀졌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지지율로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다시 본연의 자세로 국회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야의 시각차가 분명한 공수처 출범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정면충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마지노선인 8월 임시국회 시작 전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할 계획이지만, 공수처 반대라는 입장을 철회하지는 않았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협치로 정국을 이끌어가겠다는 김 원내대표의 의지는 명확하지만, 야당은 강성 후보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다시 첨예하게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협치에 관해 민주당과 통합당 사이에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있다"며 "제도 안에서 규칙을 지키며 협조해야 하는데, 통합당은 합의를 했다더라도 이를 반복하고 무조건 양보를 하라고 주장하기에 부딪힐 일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여권서도 4차 추경론

### 신동근·이용호 "호우 피해 막대"... 지도부 "일단 예비비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지자 여권 일각에서도 '4차 추경' 편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신동근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긴 장마와 호우로 전국에 피해가 막대하다"며 "지금 쓸 수 있는 예비비 정도로는 대처하기 어렵다. 불가피하게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 지역구인 전북 남원·임실·순창의 수해 상황 등을 거론하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차 추경은 야권에서 먼저 거론됐다. 앞

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수해 복구용 추경 편성을 주장했고,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예산이 책정된 게 있다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예비비로 재해 복구 비용을 충당하고 추경은 필요할 경우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4차 추경과 관련해 당내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일단은 예비비를 통해 긴급 지원을 하고 추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도 "추경 여부는 피해 규모를 보고 생각할 것"이라며 입장을 유보했다. /연합뉴스

# 輿 의원들 "최고이율 10%로 낮추자"

### 김남국·문진석·서영교 법안 발의 잇따라... 이재명도 건의

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정 대출금리 상한선을 낮춰 서민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의 제안과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및 대부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현행 최고이자율은 연 24%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불황 지속과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침체로 제1·2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자 및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진석 의원도 최고이자율을 10%로 하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 법안에는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포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의원도 10만원 미만 금전대차에도 최고이자율 24%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원금이 10만원에 못 미치는 대출에는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등 록대 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의 편지를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6명에게 보냈다. /연합뉴스

내 삶이 하나 듯... 수목장은 보성 늘푸른입니다.

고객상담센터 062-412-2800

## 자연이 준 삶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세상이 변하듯 ... 장묘문화는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 보성군 소재

(순천, 화순, 나주, 여수, 광양, 고흥군, 장흥군)

###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 저렴한 비용으로 10기 이상 선산도 가능합니다.